

# 남원에서 무인헬기로 농사 짓는다

### 주생영농조합법인, 무인헬기 지원사업 선정...내년부터 운영 병해충 방제·일손부족 해결·적기 영농 등 일석삼조 효과 기대

남원에서 내년부터 무인헬기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주생영농조합법인(대표 장기협)이 법인 최초로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주생영농조합법인은 전북도가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공동방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300ha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과 영농법인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생영농조합법인은 지난 9월 전북도에 사업을 신청,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근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에는 2019년 도에 대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 자부담 64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투자된다. 무인헬기가 운영되면 병해충 방제, 일손부족을 해결, 적기영농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생영농조합법인은 또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노지과수,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산림분야 병해충 방제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작목별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무인헬기가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번 무인헬기 선정으로 농촌고령화에 대한 미래농업 방향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많은 무인헬기가 영농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예나 등 3개 업체, 정읍 첨단과학산단 투자 협약

이너네이처와 예나, 피에스비아이 등 3개 업체가 정읍시 첨단과학산단에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정읍시청에서 협약식을 했다.〈사진〉

화장품 판매회사인 이너네이처는 건강 기능식품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45억원을 들여 정읍 첨단과학산단 7천747㎡ 부지에 공장을 세운다.

화장품 생산회사인 예나는 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의 첨단과학산단 4천948㎡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피에스비아이도 10억원을 투자해 3천896㎡ 부지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한다.

이들 업체가 계획대로 2020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하면 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투자 기업들이 정읍에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중소기업창업 비즈니스 지원단

### 기업 애로 상담 등 '종합 클리닉센터' 역할 '특독'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이하 지원센터) 중소기업창업 비즈니스 지원단이 기업 애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지원센터에 따르면 비즈니스 지원단은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법적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즈니스 지원단은 법무 제도, 금융 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생산 관리, 수출 마케팅, 경영 일반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미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및 지원하는 종합 클리닉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에 컨설팅과 무료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비즈니스 지원단 관계자는 "고용위기 지역 내 경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담과 현장 클리닉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잇따른 가동중단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익산 예술의 전당 연말 공연 다양

### 클래식 이무지치 베네치아니·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등

익산예술의전당은 연말을 앞두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14일 익산예술의전당에 따르면 클래식 공연 이무지치 베네치아니(I Musici Veneziani)와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해피크리스마스 with 웅산 공연이 17일부터 펼쳐진다.

베네치아의 음악가들이란 이탈리아어인 이무지치 베네치아니(I Musici Veneziani)는 오는 17일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오페라 명곡들을 선보인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푸치니의 '라 보엠', '토스카' 등이 송년 밤을 수놓는다. 공연에서는 18세기 유럽의 의상과 장신구를 그대로 재현해 연주하는 생동감

있는 연출과 위트 있는 연기가 펼쳐진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 진행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전막 공연은 클래식 발레 명작이다.

이 공연은 크리스마스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수놓는 명품바 차이콥스키와 마리우스 프티파가 탄생시킨 고전 발레다.

아름다운 춤과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무대가 꾸며지는 이 공연에서는 80여명의 무용수들이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이 공연은 호남에서 최초로 펼쳐진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웅산은 오는 12월 22일 '해피크리스마스 with 웅산'을 주제로 관객과 호흡한다. 문의 063-859-3254.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강진아트홀 '군민 감성 충전소'로

### 2011년 개관 이후 공연·전시회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

강진군의 문화예술회관인 강진아트홀이 지역문화지수를 견인하며 군민들의 '감성 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공연장과 전시실, 세미나실을 갖춘 최첨단 문화시설로 개관한 강진아트홀은 대형공연과 유명작가의 전시회를 해마다 기획해 강진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10개 분야 선정돼 2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전통 타악그룹 '공명'의 공연, 뮤지컬 '전설의 리틀농구단'을 무대에 올렸다.

또 전시기획으로 이이남 작가 등 60여 명의 광주·전남 작가들이 참여하는 현대미술전을 '남도미술, 강진에서 꽃피우다'라는 제목으로 개최했다.

이와함께 강진아트홀은 공연장 상주단체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



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사업으로 꾸려 지방문화 예술회관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지수에서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문화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아트홀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 기획공연을 14일 시작해 17일까지 나흘간 '세대공감, 음악으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이치현밴드'와 '자전거탄 풍경 동물원', '고등래퍼 이로한' 등이 출연해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신안군 기록관' 개관...각 부서 기록물 한곳에 보존

신안군은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보관해 왔던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할 수 있는 '신안군 기록관' 개관식을 최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부합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인 '신안군 기록관'은 청사 후문 주차장 인근에 연면적 716.11㎡로 신축됐으며, 보존서고와 열람실, 작업실로 구분돼 있다.

신안군 기록관에는 모바일(이동식서기) 89동을 설치해 20여 만권의 일반문서와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또 화재에 대비해 청정 소화 약제를 사용한 소방 설비를 구축, 기록물과 인체에 안전한 소방대책을 마련했다.

신안군 기록관은 전남도에서는 고흥군, 영광군에 이어 3번째로 건립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청과 가장 근접하게 신속한 신속한 열람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 정리하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과 서고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곡성군 '토란 스피드레시피' 리플릿 5천부 제작 배포

곡성군은 토란 소비 증대를 위해 '토란 스피드 레시피' 리플릿(사진) 5000부를 제작, 읍·면사무소와 토란재배 농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토란 수프, 토란 피자, 토란 밥 크로켓 등 누구나 쉽게 10~15분이내에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이 사진과 함께 담겼다.

토란을 제철에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토란 손질법과 보관법도 안내하고 있다.

재배 농가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토



란을 즐길 수 있도록 토란 판매 시 리플릿을 함께 동봉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1~2년 안에 대박납니다. 투자가치 최고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